

여자대학의 위상과 가치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기획처장

I. 최근 40년간 주류로 부상한 여자

“남자들은 4만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고, 여자들은 40년 전부터 남자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인기 저널리스트 해나 로진은 「남자의 종말」이라는 자신의 저서와 TED 강연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남자들이 듣기에 다소 거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등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국가에서 벌어지는 사회 현상들은 이러한 주장에 갈수록 힘을 실어준다. 해나 로진이 제시하는 미국 통계자료만 봐도 그렇다. 2명의 남자가 미국 대학을 졸업할 때 3명의 여자가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 미국 노동인구의 과반수는 이미 여자다. 의사, 변호사, 은행가, 회계사와 같은 많은 전문직에서 여자들의 점유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미 관리직에

있는 사람의 반 이상이 여자이다. 미래에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15개 업종 중에서 12개 업종에서 벌써 여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래 남자들의 독식 무대였던 교사와 약사는 오랜 전부터 여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 사법고시 합격자의 5분의 2, 외무고시 합격자의 5분의 3이 여자다. 불과 10년 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자의 이러한 급속한 사회 진출 현상은 상대적으로 남자의 역할에도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결혼 후 육아 및 가사를 전담하는 남자가 서울지역에서만 2013년도에 3만 3천명에 달했다. 10년 사이에 2.5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의 경우 3배나 증가한 것에 비해 오히려 한국은 조금 약한 편에 속한다.

II. 최근 40년간 흔들려온 여대의 위상

이와 비견할 때, 최근 40년간 이러한 여자의 일반적인 약진 현상에 비하여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여자대학은 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대학인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은 2014년 총장 취임 인터뷰에서 ‘응답하라 1978’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최경희 총장의 임기가 마치는 2018년으로부터 40년 전인 1978년. 이화여대는 당시 대학입학 예비고사 배치표를 기준으로 국내 3위의 대학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인식 때문에 40년 전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내의 다른 여대라고 해서 상황인식에 대하여 예외는 아닐 듯싶다. 특히 올해 들어 덕성여대 이원복 총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취임 공약 중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고려’라는 키워드가 포함되는 바람에 여자대학의 위상과 가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었다. 몇 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이원복 총장은 여대 졸업생들의 취업률 하락과 여고 졸업생의 여대 선호도 하락을 근거로 여대 경쟁률의 저하 현상을 우려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녀공학으로의 전환도 고려해보겠다고 표현했다.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이제는 여대의 위상과 가치를 한번쯤 짚고 넘어갈 시점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1. 우리나라의 여대 현황

원래 우리나라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포함하여 22개의 여자대학이 있었다. 그 중에서 8개의 여대가 최근 40년 동안 남녀공학으로 전환했거나 합병되어 사라졌다. 전환 혹은 합병 순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렇다. 1971년 서울여자의과대학이 고

려대학교로 합병되었다. 1987년 수도여자사범대학이 세종대학교로 전환되었다. 1993년 한성여자대학이 한성대학교로 전환되었다. 1994년 효성여자대학이 대구가톨릭대학교로 합병되었다. 1996년 상명여대가 상명대학교로 전환되었다. 1997년 부산여대가 신라대학교로 전환되었다. 2005년 전주기전여자대학이 전주기전대학교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과 합병의 결과에 의하여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광주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총 7개의 4년제 여대가 남아 있는데 광주여대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지역에 존재한다. 아울러 전문대로서는 경인여대, 배화여대, 부산여대, 서울여자간호대, 수원여대, 승의여대, 한양여대 등 총 7개의 여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2. 일본의 여대 현황

여대의 이러한 상황변화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 1901년에 최초로 세워진 일본여자대학을 포함하여 일본의 여자대학은 현재 국립대학 2개와 사립대학 68개 등 모두 70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편차치’라는 지표를 활용하여 여자대학 랭킹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도 역사적으로 여대의 위상 확대시기를 거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과 합병이라는 축소 변화를 겪어왔지만 우리나라만큼 급격한 편은 아니다. 일본 전체 대학의 수가 2년제를 포함하여 1,240개로 우리나라의 약 3배에 달한다고 볼 때, 70개의 여자대학의 비율은 오히려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일본 사회가 일반적으로 여자의 역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우리나라와 달리 여전히 보수적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 미국의 여대 현황

반면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여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온 편이다. 미국 전체 대학의 수가 2년제를 포함하여 4,400개로써 우리나라의 12배에 달한다고 볼 때, 현재 44개의 미국 여자대학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다. 1960년대만 해도 미국에 268개의 여대가 있었던 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혹독한 정제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에 지금의 미국 여자대학들은 남녀공학인 대다수의 대학에 비하여 상당한 자립 매김을 이루어 놓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여대에는 세븐 시스터즈(Seven Sisters)라는 타이틀이 붙는 7개의 명문 여자대학이 있다. 웰즐리(Wellesley), 스미스(Smith), 브린모어(Brynmaur), 마운드 홀리요크(Mt. Holyoke), 버나드(Barnard), 레드클리프(Radcliff), 바사(Vassar)가 바로 이들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레드클리프는 하버드대에 합병되고 바사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기에 이들 2개는 더 이상 여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명성과 전통을 유지하고자 여전히 나머지 5개 여자대학에 대하여 세븐 시스터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세븐 시스터즈라는 명칭은 미국 동부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연상하여 맞대응한 명칭이다. 그만큼 세븐 시스터즈에 속하는 여대들은 대학의 역사도 깊고 명성도 높다. 이들은 모두 1883년부터 1889년 사이에 설립되었고 전교생의 수가 2,000명 내외, 교수대 학생의 비율은 평균 1대10 내외이며 리버럴 아트 칼리지(Liberal Art College)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모교인 웰즐리 칼리

지의 경우, 미국 전체 리버럴 아트 칼리지 순위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있으며 주변의 MIT, 다트머스 대학과도 활발한 교육 교류를 실시한다.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부시 대통령의 부인의 모교인 스미스 칼리지의 경우, 가장 큰 규모의 여대로서 3학년부터는 해외연수나 주변 유명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왕년의 여배우 캐서린 헵번, 미국의 첫 여성 신경외과의인 도로서 클렌켄, 풀리처상 수상자인 벤티 매케이의 모교인 브린모어 칼리지는 40여개 국의 다양한 인종의 재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역시 3학년 때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인근의 펜실바니아대(UPenn), 스와스모어 칼리지와 학점교류를 시행한다. 버나드 칼리지는 콜롬비아대학교의 병설로 되어 있어서 이 두 대학을 5년간 다닐 경우 공동학위를 받는다.

간단하게나마 이상과 같은 일본과 미국의 여대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여대들에게는 일본보다는 미국의 사례가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연히 우리나라 4년제 여자대학이 7개이다 보니 한국판 세븐 시스터즈를 형성해서 여대의 위상 제고와 가치 정립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다만 미국 세븐 시스터즈가 아이비리그 대학과 지리적, 역사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출발했고, 이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태생 상의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력 양성에 있어서 여자대학의 필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플랜을 실행함으로써 미국의 여대는 지금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III. 여대의 취업률에 대한 진실

남녀공학인 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은 과연 지금의 여대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며 약점인 것이 사실일까? 교육부에서는 과거 몇 년 전부터 2014년까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평가하거나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 평가를 할 때 취업률을 높은 비중으로 반영해왔다. 그리고 그 동안 나타난 통계치들은 여대가 남녀공학인 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때 반영된 취업률을 계산할 때는 6월 기준과 12월 기준을 모두 사용했다. 6월 기준의 경우 여대의 취업률이 남녀공학에 비하여 평균 10% 내외로 낮은 반면, 12월 기준의 경우 그 격차가 2~3%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취업에 임하는 여자대학생의 반응 양상이 남자대학생들에 비하여 많이 다름을 시사해준다. 특히 6월 취업 이후 3, 6, 9,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유지취업률의 경우 여자 대학졸업생과 남자 대학졸업생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부 계산과정 때문에 6월과 12월 취업률을 모두 사용해온 지난 대학 평가에서는 취업률에서 여자대학들이 낮게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몇 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반영하는 12월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을 사용하면 여자대학의 취업률은 남녀공학에 비하여 평균 2~3%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다. 2015년에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사용한 취업률은 12월 기준의 취업률과 유지취업률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대들에게는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 상황이 된 셈이다.

그런데 이상의 취업관련 통계치에도 불구하고

여자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되는 공학 분야 전공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학사구조적 특징까지 감안한다면 단순히 여대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다는 말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정말 여대도 취업률을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여 이에 대한 상위권 지표 달성을 꾀한다면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 해결책이 아니라 학사구조개편이 정답인 셈이다.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PRIME 사업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사업이기에 이 사업에 대한 여대의 반응 여부는 취업률 향상 측면에서의 미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여대 기피현상에 대한 고찰과 대안

여고생들의 여대 기피 현상은 여고를 방문하면 피부로 금방 느껴지는 부분이다. 입학처장 시절 여고를 방문하여 여대에 대한 입학설명회를 할 때 느껴지는 분위기는 예상보다 더 냉랭하다. 여중-여고를 다닌 여자를 성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성골은 여자들의 기피대상이지 선호대상이 아니다. 여고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여대를 기피하는 현상은 남녀공학에 대한 막연한 감성적 선호에 대한 반사현상이다. 최소 4년간의 대학시절, 강의실과 도서관, 식당, 캠퍼스 안에서 같은 여자들만 있는 것보다는 남자들도 섞여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지금 세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판단의 근거와 사유가 그것이 전부 혹은 대부분이라는 점이 매우 아쉽다.

여고생들 스스로 내가 왜 대학을 가야하나, 나

이슈진단 및 분석

는 대학 졸업 후에 어떤 커리어우먼이 되어야 하나, 그런 나를 잘 도와주고 훈련시키며 성장시켜줄 대학은 어디일까를 놓고 좀 더 진중하게 따지고 재면서 고민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여대는 여성인재 양성에 있어서 여대의 가치와 장점을 내부적으로만 정리하여 보관해 놓지만 말고 이러한 자료들을 여중, 여고생들은 물론 진학담당 교사들,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이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성인재 양성에 있어서 여대의 가치와 장점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많이 해왔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에도 상당부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Judy Rogers 박사의 “우리는 여전히 여대가 필요하다”, Katy Casserly의 “여대를 통한 여성 교육의 장점”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남녀공학인 대학에서는 교수나 직원이 여학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감성적 적응력과 학문성취도가 영향을 받는다. 드물지 않지만 남학생을 선호하는 교직원인 존재할 경우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주눅들 수밖에 없으며 정규수업시간은 물론 다양한 비교과활동에서도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공학이 남자에게 유리한 교과과정과 실습환경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여대에서의 여성교육은 남성과 여성 간에 이루어지는 차별적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과 학생회나 총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에서 리더의 역할은 대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리더십 실습기회를 제공해준다. 같은 규모의

남녀공학 대학과 비교할 때 여대에서는 모든 형태의 리더 역할에 대한 모든 기회가 여자에게만 주어진다. 이 부분은 남녀공학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리하다.

대학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교수는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며 여학생들이 본받고 선망하는 중요한 롤 모델이다. 따라서 여자 총장과 여자 교수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대는 여학생들이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롤 모델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다. 미국의 경우 남녀공학인 대학에서 여자 총장의 비율은 12%인 반면, 여대에서의 여자 총장의 비율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에 대한 대부분의 행정적 조치와 교육 프로그램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항목처럼 취급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여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예외가 아니라 규율 자체이고 규정의 핵심이다. 이로 인하여 여대에서는 여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자신감을 갖는 데 더 유리해진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여대는 오로지 여자 대학생들만을 생각한다. 총장을 비롯한 전체 교수와 직원이 여대생들을 교육하는 데 모든 자원을 100%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 교육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여학생들을 위해서만 100% 투자한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사례만 보아도 53년 전통의 바름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숙사 건물들과 별도로 10층짜리 인성교육건물을 독립하여 신축했다. 재학생 모두가 이곳에 기거하면서 공동체 기반의 인성교육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지은 부가적인 건물이다. 여학생들을 위한 이런 과감한 투자가 남녀공학 대학

이라면 과연 가능했을까? 여학생들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신설이나 중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여학생을 배려한 예외적인 수준을 넘어가거나 전체 예산의 일정한 비율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른 바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남녀공학 대학에서는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들다.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점이 있다. 지나간 역사 동안 여대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온 졸업생들의 구체적인 반응을 모아보면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려지는 여대의 위상과 가치는 여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가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긴요하며, 저평가된 여대의 가치와 위상을 정상화하거나 더 높이기 위한 입구 측면의 전략 핵심이다.

V. 여대의 위상과 가치를 위하여 풀어야 할 숙제

앞서 언급했듯이 여대의 학사구조는 취업률 측면에 보았을 때 남녀공학인 대학에 비하여 결코 유리하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한 취업통계자료를 보면, 의약계열(80.8%)을 제외하면 공학계열의 취업률이 74.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교육계열(67.9%)과 사회계열(63.9%)이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부분은 자연계열(63.8%)과 인문계열(57.9%), 예체능계열(59.6%)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대는 취업률이 낮은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예체능계열이 주요 학과들을 형성한다.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학계열은 전통적으로 남학

생의 영역이라고 인식해서인지 지금까지 여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미진했다. 물론 공학계열의 학과가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비율에서 따질 때 충분하지는 않다. 따라서 취업률을 대학 운영의 주요 지표에서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금부터 여대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개혁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공학분야의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앞으로 여대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주제는 STEM 교육 분야이다. STE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약자로서 미래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며 미래 희망 직업군을 형성하는 열쇠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2009년 미국 노동부에서 밝힌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이 선호하는 10대 전문직종 가운데 STEM과 관련된 직종이 8개를 차지했을 정도이며,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STEM 관련 직종의 증가율 17%는 다른 유망직종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미국의 세븐 시스터즈 여대 중 하나인 스미스 칼리지는 STEM에 대한 관심을 오래전부터 집중해 온 대학이다. “Engineering Liberal Education”이라는 슬로건 하에 PEC(Picker Engineering Program)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PEC는 스미스 칼리지의 강점인 교양 및 자연과학을 공학 지식 및 기술과 통합하는 프로그램이다. 방학 중에는 Skill Studio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과 수업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에 대한 지식과 실습을 실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여대도 앞으로 STEM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높이는 길이 여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남녀공학인 대학이 STEM에 관심을 가지는 방법과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성인지적 교육(Gender Cognitive Education)을 접목

이슈진단 및 분석

해 여학생들의 입장과 특성을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분히 남자 중심적 학문이었던 STEM 분야에 여자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하는 성인 지적 교육을 접목하면 여대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으로 갖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남녀공학인

다른 대학들에게도 이에 관한 노하우를 보급함으로써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여대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소개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기획처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특별연구원을 거쳐 1995년 서울여자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하여, 전산소장, 정보통신교육원장, 다매체교육지원센터장, 입학처장, 교무처장을 거쳐 현재는 기획처장을 맡고 있다. 미래 사이버공간에서의 여성인력의 잠재역량 개발에 집중하여 IT 분야 특성화를 기획하여 2001년 수도권 최초로 정보보호학과 설립, 여대 최초의 IT 단과대학 설립을 추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최근에 교육부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학부교육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원년인 2010년부터 이 ACE 사업을 기획하여 최초 선정된 이래 2014년에도 연속 선정되어 진행 중이다. 대외적으로 한국저작원위원회 기술위원,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보호, 창의성 교육, 인터넷윤리 등이다.